

동주문학상 시상식...본상 강재남 시인

광주일보·시산맥 공동 제정

해외작가상 임혜신

해외작가 특별상 곽상희

해외신인상 유금란 시인

광주일보(사장 김여송)와 계간 시산맥(대표 문정영)이 공동 제정한 제6회 동주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강호화랑에서 수상자 가족 및 지인, 시산맥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수상자와 문학상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참석했으며 식전행사, 축하 등을 생략한 채 시상식 위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또한 코로나 여파로 해외 수상자들은 참석하지 못해 대리 수상자들이 대신해 상을 받았다.

먼저 동주문학상 본상 수상자인 강재남 시인(강규리 씨 대리 수상)에게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수상작은 '꽃이라는 기호의 모습' 외 5편. 경남 통영 출신인 강 시인은 2010년 '시문학'으로 등단했으며 한국문화예술유망작가 창작지원금 수혜, 한국동서문학작품상을 수상했다.

심사를 맡은 안도현·송찬호·이정록 시인은 "그는 단어와 단어의 사이를 비틀고 문장과 문장의 사이를 구겨 놓으면서 시적인 것을 찾아낸다"며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가 흠뻑린 언어는 묘하게 독자에게 다가갈 때 결집된 형태를 띠게 된다"고 평했다.

동주해외작가상 수상자인 임혜신 시인(한연수 씨 대리수상)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됐다. 동주해외작가상은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주어진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활동하는 임 시인은 1997년 미주 한국일보로 등단했으며 이번 수상작은 '에어비엔비' 등 5

편이다.

또한 윤동주 시인의 정신을 시로 구현하는 활동을 펼치는 시인에게 주어지는 동주해외작가특별상을 수상한 곽상희 시인(문인귀 시인 대리수상)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한 곽 시인은 1980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으며 국제여류시인상 등을 수상했다.

아울러 신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주해외신인상 수상자인 유금란 시인(유태환 대리수상)에게도 등단패가 수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조하나 학생(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에게 장학금이 전달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문정영 동주문학상 대표는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예년과 달리 시상식이 축소돼 열렸지만 운동주 시인의 시 정신은 오늘의 우리가 계승해야 할 고귀한 유산"이라고 밝혔다.

/서울·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도립극악단 정기공연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연습 장면.

여순사건 희생자 위한 진혼·애도

전남도립극악단 정기공연

12월 3~4일 남도소리올림픽

"나무를 고문하여 그대의 푸른 숲마저 사라지면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전남도립극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이 오는 3일(오후 7시 30분)과 4일(오후 5시) 무안군 남도소리올림픽 공연장에서 2021년 정기공연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를 선보인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기념해 제작된 이번 공연은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진혼과 애도이며, 73년간 짐목을 강요당한 채 살아온 유가족들의 억눌린 슬픔을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극은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아버지의 제삿날, 유복자 아들의 독백으로 시작한다. 속 없이 순박한 사내의 너스레를 관객과 주고받으며 판놀음과 줄타기, 재담 등을 통해 8·15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어지러웠던 정치적 상황을 그렸다.

극중 소리극 '불청객이 왔다'에서는 1948년 10월 순천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극화해 그날의 참상을 담았으며, 연이은 무용극 '기억의 자살'과 '기억의 부활'에서는 난발(Non-verbal) 무용을 통해 죽은 자들을 위한 진혼과 살았지만 불온한 자들이라는 낙인 속에 외면당하고 고립되었던 산 자들을 향한 위로를 온 몸으로 풀어냈다. 이번 작품의 작곡은 류형선 전남도립극악단 예술감독이 맡았으며, 연출은 공연창작그룹 '문화행동 비림'의 김재욱 대표 연출가가, 극본은 판소리 뮤지컬 '달밤의 꿈 날다' 등을 집필한 김수형 작가가 맡았다. 안무는 정갈만 국립무용단 훈련장이 담당했다.

한편 전남도립극악단은 이날 말 여순사건의 슬픔을 담은 뮤지컬비디오 '눈물꽃'을 전남도립극악단 유튜브,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선공개할 예정이다. 일반 1만원. 문의 061-981-692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제6회 동주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7일 서울시 종로구 강호화랑에서 수상자와 가족, 시산맥 회원,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시상식 후 포즈를 취한 문정영 대표(왼쪽)를 비롯해 대리수상자들과 동주문학상 관계자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예술가 자부심·만족도 높지만 사회적 인정은?

예술지원 인식·미래수요 조사

예술인들은 예술가로서의 자부심과 만족도는 높지만 사회적 인정 부분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인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신규 지원영역을 발굴하기 위해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 수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술인 87.2%는 최근 5년간 공공지원사업에 신청한 경험이 있으며 이중 79.8%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가장 도움이 됐던 지원사업 순으로 창작지원(68.1%), 인력·일자리지원(23.6%), 공간사용지원(21.5%)을 꼽았다.

예술인은 예술활동 및 예술의 가치에 대해 높은 자부심과 만족도를 드러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본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85.5점,

예술가 직업 만족도 80.0점, 예술활동 지속의지 88.9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92.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예술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윤 창출은 40.3점, 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61.2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57.7%)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창작지원금(17.5%), 예술창작·활동(9.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과 예술단체, 문화예술 유관기관 관계자 5만7592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유효응답 기준으로 5596명의 예술인이 참여했다. 조사는 지난 8월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서구문화센터 30일

고영직 문학평론가 강연

광주서구문화센터는 매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라는 테마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해 시민들의 인문적 소양과 삶의 지혜를 넓히는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45번째 강연에는 고영직 문학평론가를 초청해 '신중년문화예술교육, 끈대말고 꽃대 되기'를 주제로 진행한다.

고 씨는 50세 이상 세대에게도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인문학과 만나고, 예술과 접목하는 과정에서 삶을 더 즐겁게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날 강연에서는 50세 이상 신중년 세대에게 창의적 전환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문화적이고 예술적으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문의 062-654-430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동심의 세계에서 다시 살아난 문화재

국립광주박물관 내년 3월1일까지

어린이문화재 그림전

동심의 세계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문화재.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2022년 3월 1일(화)까지 전시관 2층 다목적실에서 '제33회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들이 문화재를 감상하고, 재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유산에 흥미를 갖고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운영한 '제33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잔치'의 수상작품을 모았다. 어린이들은 광주박물관 전시실 문화재를 보고 자신의 느낌을 자유로이 그림으로 그렸으며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230명이 참가했다.

무등현대미술관 정승규 관장, 조선대 박홍수 교



김지원 작 '소원을 빌어봐!(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수, 전남교서기문교수가 심사를 맡아 60명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소원을 빌어봐!(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를 그린 영산초등학교 2학년 김지원 어린이가 수상했다. 문의 062-570-780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Him e Bsong Solar Energy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